

집중호우로 인한 양계산업 피해 상황

김용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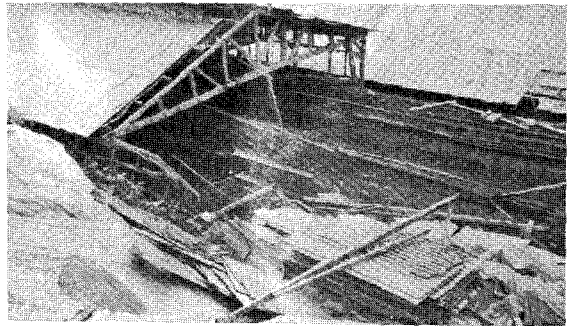
유래없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태풍[셀마호]와 충청 및 경인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축산업분야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양계산업의 피해중 대부분 육계업이 가장 심한 손실을 입었다.

경인지역에서의 비교적 큰 피해 농장은 충청농장으로 알려졌는데 어린이(여,6세)1명, 어른(남,20,30)2명 모두 3명이 사망했으며 계사는 완파가 10동(棟), 반파2동(침수포함), 산란계 7만수 폐사등 총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 계사 및 가옥이 파괴되면서 일어났다.

이번 호우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경남과 충남지역으로 대부분이 육계농장이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호우로 한 산사태로 계사가 파괴된 모습 (청천농장)

- 경남 약50만수(육계)
- 충남 약50만수(육계)
- 경기 약10만수(산란계 포함)

본회 경남지부 조사에 의하면 육계 30일령 이하가 187,000수, 30일령 이상이 217,640수, 계사피해는 완파 370동 반파 98동(가입회원 상황)이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비회원의 피해가 합치되면 총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의 상황은 대규모 농지 피해와 더불어 양계업계도 많은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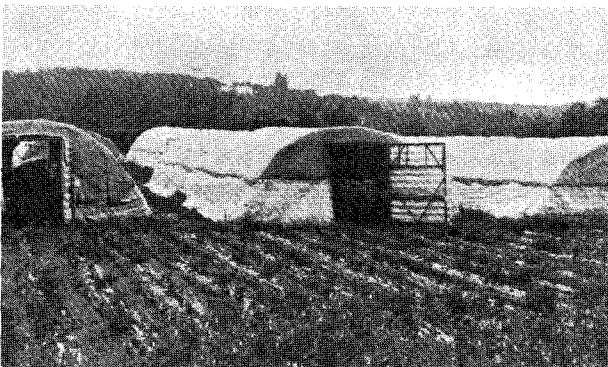
입었다. 특히 강경, 부여, 서천 부근이 심한편인데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으로 더욱 컸다.

충남 지역별 피해 상황은

- 강경 6만수 (육계)
- 부여 30만수
- 서천 4만수

이번 폭우로 입은 피해 원인은 무엇보다 영세한 가운데 홍수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우량 자체도 엄청났지만 그보다 앞서 계사 위치 선정의 미비점을 드러낸 결과로 점차 브로일러산업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산란계의 피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육계산업도 하천지역이나 저지대의 비교적 지가(地價)가 낮은 곳만의 선택은 피하고 좀더 안전한 입지조건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계



위치선정을 고려하지 않은 간이식 계사로 된 육계농장이 피해가 많다(충남 서천 지역)